

2024. 7. 5. 금 19:30 - 7.6. 토 15:00

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

YOJAYA

YOJAYA

국립아시아문화전당
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

야요야 야요야 야요야

악마
리미트



관람료
R석 4만원 S석 3만원

관람연령
7세 이상 관람가

예매
www.accf.or.kr
1899-5566

주최 A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
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

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
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



에매 바로가기

시대와 사람을 고찰하는 안무가 안은미의 시선, ‘신여성’을 향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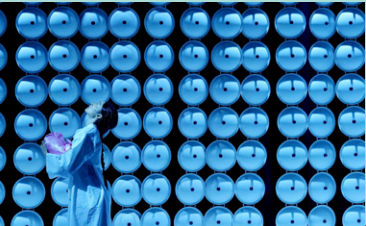
인류학적 탐구와 스펙터클한 안무·연출로
최고의 무대를 완성해내는 현대무용가 안은미 초청 작품,
국립현대무용단 <여자야 여자야>

여자라는 단어로 들여다보는 우리나라 근현대

개항기. 그때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. 빼앗긴 나라에 그 여자들이 있었다. 이름이 없고, 조흔 풍습에 따라 일찍 결혼하고, 남편이 죽어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식 딸린 과부가 되고. 안은미는 이렇게 살다가 사라져 간 여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한다.

신여성 또는 모던걸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화려하게 한 시대를 장식한 듯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여자들이 그들이다. ‘서울에 땀스흠을 허하라’라고 외친 신여성성이 있었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비련의 신여성성이 있는가 하면, 사랑은 무한대라고 주장한 로맨티스트 신여성, 이름을 갖지 못했어도 이름값을 한 신여성도 있다.

<여자야 여자야>는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섰으나 시대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면서도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여자들의 면면을 담는다. 움직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단발, 장신구, 의복 등으로 환치시키기도 하고 그 시대 유행어나 신조어로 사회·문화적 변화 양상과 병치하기도 하며 시청각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낸다. 그리고 그들이 남긴 조각들이 이후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대하드라마적인 스펙트럼을 펼칠 것이다.



사진제공: 국립현대무용단



사진 BAK

안무가 현대무용가 안은미

관습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춤으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 무용계에서 주목받아 온 무용가 안은미. 할머니·아저씨·장애인·외국인 등과 함께 무대를 꾸리며 세대/신체/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.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안은미는 인류학적으로 춤을 바라보고, 춤을 사회로 돌려보내려 한다. 최근에는 예술감독으로 있는 안은미컴퍼니에서 다양한 미디어 춤 작품을 선보이는 ‘은미 뽕 축제’를 개최했다.

※ 대표작 : <조상님께 바치는 댄스>, <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>, <사심없는 댄스>, <안심댄스>, <대심댄스>, <바리>, <안은미의 복.한.춤>, <디어 누산타라: 잘란잘란> 등